

# 설원과 빙판 위 열정의 승부...전국동계장애인체전 개막

17개 시도 1127명 선수단 참가...광주, 컬링·쇼트트랙 경기 출전  
전남, 크로스컨트리 최재형 3연패·컬링 4강 하키 8강 진출 목표

장애인 동계 스포츠의 꽃,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전이 막을 올렸다.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27일 오후 4시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진행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 486명, 임원·관계자 641명 등 총 1127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날 개막식은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동계스포츠 중심지 강원!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치어리딩 공연과 축하공연으로 시작했다.  
평창 속사초 학생들의 치어리딩 공연과 트로트 가수 나영의 축하공연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개식 통고, 선수단 입장, 홍보영상 상영, 개회선언, 환영사 및 축사, 선수·심판 대표 선서,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광주·전남은 개막식 응원 열기를 동력 삼아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시는 컬링과 빙상(쇼트트랙) 2개 종목에 선

수 6명을 포함한 선수단 20명(선수 6명·지도자 2명·보호자 3명·임원 9명)을 파견한다.  
광주 컬링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사전경기부터 레이스를 시작했다.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혼성 휠체어 2인조에서 정해천·맹분호가 충남과 접전 끝에 패했다.  
예선 탈락의 아쉬움을 뒤로한 광주 컬링은 28일부터 시작되는 혼성 휠체어 4인조 경기에서 반전을 다짐하고 있다.  
빙상(쇼트트랙)은 28-29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500m와 1000m(IDD 성인부)에서 각각 5위에 올랐던 윤좌현과 올해 새롭게 출전하는 한성주가 기록 단축을 노린다.  
전남 선수단은 '겨울 스포츠 불모지'라는 한계를 넘어 종합 4위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남은 스노보드를 제외한 6개 종목에 총 83명(선수 41명·감독·코치 및 보호자 18명·임원 24명)이 참가한다. 참가 선수 41명 중 21명이 취업선수로 활동 중인 만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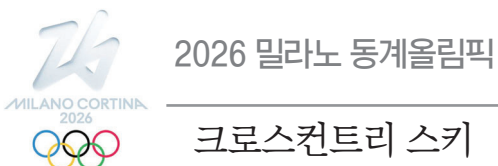
27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선수 대표단과 심판이 선서를 마친 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특점을 뽐냈다는 구상이다.  
전남은 휠체어 컬링 4강, 하키 8강 진출을 목표로 잡았고, 크로스컨트리 최재형은 3년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폐회식은 대회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3시 강릉 신라모노그램에서 열려 나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대회는 오는 3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단팰츠 동계패럴림픽을 앞둔 주요 실전 무대

로도 주목받고 있다.  
주요 경기는 지상파(KBS)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강릉=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 ‘설원의 마라톤’ 노르웨이·스웨덴 독주 속 한국 도전



바이애슬론, 예카테리나 등 출전  
한다숨·이의진 등 세계 무대 도전

‘설원의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동계 올림픽의 시작부터 함께해 온 가장 오래된 기종 종목이다.  
여기에 정교한 사격을 더한 바이애슬론과 기술의 정점인 스키점프를 결합한 노르딕 복합까지, 세 종목은 북유럽의 험난한 자연을 극복해 온 인류의 생존 본능을 스포츠로 승화시킨 동계 종목의 정수로 꼽힌다.  
동계 올림픽의 ‘뿌리’와도 같은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1924년 제1회 샤모니 대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최고참 종목이다.  
가파른 경사를 내려오며 속도를 겨루는 알파인 스키와 달리 크로스컨트리는 평지와 오르막이 섞

인 설원을 오직 인간의 근력으로 달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쉽 없이 코스를 완주해야 하는 특성상 체력과 인내력이 필수라 흔히 ‘설원의 마라톤’이라 불린다.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대회에는 총 1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남녀 경기 거리를 완전히 통일해 눈길을 끈다.  
전통의 강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은 ‘전설’ 이재원의 뒤를 잇는 한다숨(경기도청), 이의진(부산시체육회) 이준서(단국대) 등이 세계 무대와의 격차 줄이기에 나선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소총 사격이 결합한 종목이다.  
심박수가 요동치는 격한 주행 끝에 곧바로 평정심을 찾아 흔들림 없이 표적을 맞혀야 한다. 사격 결과에 따라 순위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드라마틱한 특성이 있다.  
사격에서 표적을 맞지 못하면 종목에 따라 150m의 벌칙 코스를 추가로 돌거나 기록에 1분의 시간이 강제 합산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한 발의 실수가 수백 m의 거리 차이로 둔갑해

순위를 순식간에 수십 계단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사로를 떠날 때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이애슬론의 묘미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녀 개인, 스프린트 등 총 11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국 대표팀이 격돌한다.  
한국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 압바푸모바 예카테리나, 최두진(포천시청)이 출전한다.  
스키점프의 화려한 기술과 크로스컨트리의 강인한 체력이 모두 필요한 노르딕 복합은 이번 대회 3개의 금메달이 주인공을 기다린다.  
스키점프 성적을 바탕으로 크로스컨트리 출발 순번이 정해지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에서 고른 기량을 갖춰야 한다.  
아쉽게도 한국 노르딕 복합은 이번 밀라노행 티켓 확보에 실패해 다음 대회를 기약하게 됐다.  
노르딕 복합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남자부만 열리는 종목이기도 하다.  
스키점프 여자부 경기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것이 2014년 소치 대회 때부터였고, 크로스컨트리는 워낙 체력 소모가 심한 종목이다 보니 이 두 종목을 동시에 해야 하는 노르딕 복합 여자부 경기는 아직 올림픽에서 열리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김시우, PGA 파머스 인슈어런스서 우승 재도전

김성현·김주형·이승택도 출전  
올 시즌 초반 날카로운 샷 감각을 보여준 김시우(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우승에 재도전한다.  
김시우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 코스에서 열리는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960만달러)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1, 2라운드를 사우스코스(파72·7765야드)와 노스코스(파72·7258야드)에서 번갈아 치르고, 남은 이틀은 사우스코스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LIV 골프 이적설을 뒤로 하고 PGA 투어에 잔류한 김시우는 올 시즌 초반 2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시즌 개막전 소니오픈에서 공동 11위에 올랐고, 26일에 막을 내린 두 번째 대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선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다가 마지막 4라운드에서 휘청이며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2023년 1월 소니오픈 이후 우승을 추가하지 못한 김시우는 3년 만의 우승이자 PGA 투어 통산 5승을 노린다.  
이번 대회엔 올 시즌 PGA 투어에 복귀해 선전하는 김성현과 재기를 노리는 김주형, 데뷔 시즌을 치르는 이승택도 출전한다.  
김성현은 소니오픈에서 공동 13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공동 18위를 기록하는 등 2개 대회 연속 톱20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2개 대회 연속 컷 탈락의 쓴맛을 본 이승택은 첫 컷 통과를 노린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 가장 화제를 모으는 선수는 브룩스 켈카(미국)다.  
PGA 투어 통산 9승의 켈카는 2022년 LIV 골프를 떠났다가 지난해 12월 LIV 골프와 계약을 해지한 뒤 PGA 투어가 만든 복귀 회원 프로그램 제도를 통해 돌아왔다.  
이번 대회는 켈카의 복귀전이다. 그가 PGA 투어에 출전하는 건 2022년 3월 발스파 챔피언십 이후 근 4년 만이다. /연합뉴스

## LPGA 막 오른다...김아림, 왕중왕전 타이틀 방어 도전

신인 황유민도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이번 주 ‘왕중왕전’으로 2026시즌 막을 올린다.  
2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 컨트리클럽(파72·6624야드)에서 2026시즌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210만달러)가 열린다.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지난 2년간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다.  
한국 선수로는 2019년 지은희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지난해엔 김아림이 우승을 차지해 올해 대

회에서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올해 대회엔 디펜딩 챔피언 김아림을 필두로 총 39명이 출전해 2026시즌 첫 트로피를 놓고 다툰다.  
한국 선수는 김아림 외에 유해란, 양희영, 임진희, 이소미, 황유민이 참가한다.  
특히 ‘돌격대장’ 황유민은 LPGA 투어 신인으로 첫 대회에 나선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며 미국 무대 진출을 준비하던 황유민은 지난해 10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열린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웰리파인(Q) 시리즈를 거치지 않고 LPGA 투어에 직행했다.  
여타 신인이자면 ‘최고 2년 우승자’만 나설 수 있는 대회에서 데뷔전을 치르기 쉽지 않으나 황유

민은 우승한 덕에 LPGA 투어에 입성과 동시에 첫선을 보이게 됐다.  
이번 대회엔 한국 선수들 외에 톱 랭커들도 다수 출전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한다. 세계랭킹 1위 지노 티피온(태국)과 2위 넬리 코다(미국), 4위 야마시타 미유(일본), 5위 찰리 헐(잉글랜드), 6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등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2026시즌 LPGA 투어에서는 5개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31개의 정규 대회가 펼쳐지며, 미국과 유럽의 대항전인 솔하임컵, 이벤트 대회인 그랜트 손턴 인비테이셔널을 포함하면 총 33개의 대회가 열린다.  
총상금은 1억3200만달러(약 1915억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미술완보 : 민은주 개인전

일시 : 2026-01-23(금)~2026-02-22(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